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디딤쇠봉사단 앞세워 다양한 봉사활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디딤쇠봉사단이 2018년에도 힘차게 출발했다.

인천공장 직원들로 구성된 디딤쇠봉사단은 지난 2월 설 명절 때 선물세트를 들고 인천공장 주변의 저소득층 가정을 누비면서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전통시장 물품을 복지관에 배달해주기도 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직원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연말에도 소외 계층 돕기에 나선다.

연탄 나누기와 끝전 모으기를 활용한 사랑의 쌀 나누기가 대표적이다.

끝전 모으기는 월급에서 1천원과 1천원 미만 금액을 공제해 적립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연간 2천만원을 웃돈다.

직원들의 이 같은 이웃사랑 실천 움직임에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만큼을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끝전 모으기로 조성하는 성금 규모가 매년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인천공장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쌀을 사들여 지역의 독거노인, 결식아동,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어린이공부방 등에 전달하고 있다.

지역 소외계층 보듬는 행복나눔식권

지역의 소외계층 가구에 식권을 후원하는 행복나눔식권도 주목받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인천공장 직원들은 이와 함께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다.

이 상품권은 모두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활동은 연중 내내 펼쳐진다.

'희망의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대제철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꼽힌다.

디딤쇠봉사단은 또 지난 봄철에는 인천 동구 중봉대로와 동

구 노인복지관, 현대시장앞 도로, 그리고 동인천역 도로와 회사 인근 가좌천 등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구청 산하 행복주민센터가 지정하는 일대의 골목길에서 벽화작업으로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장 주부봉사회는 연중 진행하는 무료급식 활동과는 별도로 매주 조를 나누어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빵봉사, 천연차약 만들어 주기, 교구제작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은 무궁무진하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관계자는 "공장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디딤쇠봉사단의 활동은 1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